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8호

2022 카타르 월드컵

벤투, 한국 대표팀 떠난다... “함께 일한 선수들 중 최고”

신현보 한경스포츠 기자

월드컵 첫 ‘여성 심판 트리오’... “성차별적 스포츠의 진전”

김민지 서울신문 기자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한국서 히잡 안 쓰고 경기했다고... 선수 집 폐허로 만들어

김수형 SBS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엄마와 함께 배우는 야구학교 개최

손찬익 OSEN 기자

고창군체육회

체육회장 식당에 ‘회식 몰아주기’... “수천만원 결제”

허현호 전주MBC 기자

안동시체육회

안동시체육회 경기단체 임원, 훈련비 횡령의혹

권정식 한국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벤투, 한국 대표팀 떠난다 “함께 일한 선수들 중 최고”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6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패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브라질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한 벤투 감독은 "경기를 좀 더 지배하려고 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골을 더 넣었다면 좋았겠지만, 난 우리 팀이 여전히 자랑스럽고,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앞으로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뒤에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라면서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4년 4개월 동안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했다"면서 "만족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선수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일했던 선수 중 최고"라고 덧붙였다.

월드컵 첫 '여성 심판 트리오' "성차별적 스포츠의 진전"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만 이뤄진 심판진이 출격한다. 주심은 지난 23일 대기심으로 월드컵 첫 무대를 밟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호 여성 심판이 된 스테파니 프라파르(39·프랑스)다.

오는 2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선 축구계 새 역사가 나온다. 이날 경기에는 프라파르가 주심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여성 심판 네우자 백(38·브라질)과 카렌 디아스(38·멕시코) 심판이 부심으로 나선다. 1930년 월드컵 시작 이래 92년간 온전히 여성 심판으로만 경기 심판진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코스타리카-독일전은 '죽음의 조'에 소속된 두 팀의 16강 진출 운명이 걸려 있다. 양측 감독과 선수들은 여성 심판진이 임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코스타리카 축구대표팀 감독은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수아레스 감독은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월드컵 본선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임명된 것은 '성차별적 스포츠'를 하는 여성들에게 한 걸음 나아간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남성이 지배하는 직업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는 프라파르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수아레스 감독은 "이건 또 다른 진전이다. 특히 매우 성차별적인 이 스포츠에서 프라파르의 헌신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면서 "프라파르가 도달한 지점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프라파르의 성취가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축구에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한지 플릭 감독 역시 "프라파르를 100% 신뢰한다"면서 "그녀의 성과와 업적으로 볼 때 프라파르는 여기에 올 자격이 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환영했다. 코스타리카의 미드필더 셀소 보르헤스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대단한 성과"라면서 "그녀가 그라운드에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 수비수 루카스 클로스터만 역시 "게임을 뛰기 전 호루라기를 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경기가 평범한 것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금녀의 벽' 깬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남자 월드컵 92년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 6명이 기용됐다. 중동은 여성 인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있다.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이 기용된다는 소식은 많은 화제를 모았다.

FIFA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주심 36명, 부심 69명, 비디오 판독 심판 24명이 조별리그에서부터 결승전과 3·4위전까지 모두 64경기에 포청천으로 나선다. 이 가운데 여성 주심이 3명, 여성 부심이 3명이다. 프랑스 출신 스테파니 프라파르를 비롯해 살리마 무칸상가(르완다), 야마시타 요시미(일본)가 여성 주심으로 휘슬을 분다. 네우사 백(브라질), 카렌 디아스(멕시코), 캐서린 네스비트(미국) 3명은 부심으로 나선다.

피에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장은 "FIFA는 수년 전부터 남자 주니어 및 시니어 대회에 여성 심판을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을 선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긴 과정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자 대회에서 여성 심판을 선발하는 것이 더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FIFA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서 히잡 안 쓰고 경기했다고 선수 집 폐허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히잡을 쓰지 않고 참가했던 이란 여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선수의 집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이란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오르지 못하자 환호하던 이란 남성은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벽과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집 앞에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에서 받은 메달도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히잡을 쓰지 않고 출전해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영웅으로 떠오른 엘나즈 레카비 선수 가족의 집입니다.

현지 언론 이란와이어는 이란 경찰이 주택을 철거했고, 레카비 선수의 오빠에게 법 위반으로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카비 선수는 귀국 이후 부친의 집에 연금됐으며, 해외로 나가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가족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란 정부는 강경한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미국에 패배하자 축포를 터뜨리고,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패배에 환호하던 남성 메흐란 사막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란 인권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에서 보안군 손에 살해된 사람이 지금까지 44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엄마와 함께 배우는 야구학교 개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는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강릉고등학교 야구장 및 실내야구장,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배우는 야구학교'를 개최한다.

이는 협회가 주관하는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i-Leaague)'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협회는 참가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수 100명과 학부모 100명 등 총 200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2022 유청소년클럽리그(i-Leaague)'는 성적과 실적이 우선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야구자체를 즐기는 환경을 제공하고, 출전하는 경기 수와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엄마와 함께 배우는 야구학교는 야구기술뿐만 아니라, 중학교 진학에 앞서 건강한 야구선수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간 동안 야구파트는 KBO 출신 레전드들이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투수파트는 차명주 KBSA 이사와 홍민구 전 롯데코치, 타격파트는 장종훈 전 한화코치, 포수파트는 김동수 SBS sports 해설위원, 수비파트는 이종열 SBS sports 해설위원이 각각 코치를 맡아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박용택 KBSN 해설위원이 레전드 강사로서 참석해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줄 예정이다.

체육회장 식당에 '회식 몰아주기' "수천만 원 결제"

◀앵커▶

고창군 체육회가 지난해 1년간 식당 한 곳에서만 80%의 식비를 결제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식당 주인, 고창군 체육회장이었습니다. 해당 체육회장은 이달 말 고창군 체육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창의 한 장어 전문 식당입니다. 고창군 체육회는 지난해 1년간 이 식당에서 전지훈련 명목으로 식비 1,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회식 15차례 가운데 12차례, 전체 보조금 1800만 원의 81.6%를 이곳에서 결제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40여 차례 중 25차례 전지훈련 식사비를 이 식당에 지급했고 총액은 2,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 군에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 고창군 체육회와 특수 관계입니다. 오교만 고창군 체육회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식당 관계자]

"한 번씩 오시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 급했다는 건 결제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 드시긴 했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고창군체육회는 또, 장어 3,300만 원어치를 이 식당에서 구입해 읍면 체육회장 등에게 명절 선물로 돌렸습니다. 선수 육성 등에 쓰여야 할 임원 회비로 회장의 식당에서 물건을 구입한 건데,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고창군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 회장은 식당 선정은 고창군 체육시설사업소에 위임했을 뿐이고, 명절 선물도 자신이 들인 돈이 더 많다며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교만 / 고창군체육회장]

"(체육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체육회 감사를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 감사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체육회를 말아먹은 양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 밖에도 고창군 체육회는 훈련비 보조금 8천6백여 만 원을 아무런 증빙 없이 종목별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 군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만 10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통해 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의 부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한 고창군 .. 하지만, 적발된 10건에 대해 고창군이 내린 조치는 그저 '시정'과 '주의' 조치뿐, 환수 금액은 고작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창군 관계자]

"민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회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징계나, 뭐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 안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고...."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에 솜방망이 처분까지 더해지면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도입된 민선 체육회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체육회 경기단체 임원, 훈련비 횡령의혹

안동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한 임원이 도민체전 훈련비를 선수들에게 운동용품을 구입해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5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가맹경기단체 사무장(전무) A씨는 지난 2년간 도민체전 훈련비를 선수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용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대표 출신인 A 사무장은 지난해 도민체전 훈련비 중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실업선수단 규정을 어기고 운동화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올해는 유령선수들을 모집해 도민체전 출전선수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운동용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다. 이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A 사무장은 최근 대회 출장 중에 경기장을 이탈, 명의상 수령자에게 실제로 용품을 지급하거나 횡령금액을 반납하려다 실패했다. 논란의 운동용품은 체육회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사무장의 혐의가 상당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다. A 사무장은 이 과정에서 훈련일지와 용품지급 대장도 조작했다. 훈련기간 식대와 간식비 등은 단 한 푼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A사무장은 실업팀 코치를 겸직하면서 연간 수천만원에 해당되는 용품을 아내 명의 가게에서 구입,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스포츠 용품점 대표 (B)씨는 “국대출신 지도자가 고향에 내려와 후진양성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는데 경기단체 사무장과 안동시청 실업팀 코치를 겸직하는 막강한 자리를 악용해 가족 명의로 관련 사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팀 감독이나 코치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타 용품점은 영업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경기단체는 최근 총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임했다.

안동시체육회 경기단체가 도민체전 훈련비 지출과 관련 타 종목도 같은 방법으로 상당부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종목에 대한 수사 확대도 비켜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도민체전 훈련비 집행 관련 민원이 제기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협회에서 징계가 내려진 만큼 내용을 확인해 검토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는 힘...수원 인프라 늘고, 생활체육은 즐거워진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06000484>

'월드컵 첫 여성 주심'...카타르서 이룬 새 역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2897_35744.html

[월드컵] ILO "FIFA, 개최국 노동관련 더 면밀히 살펴봐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5059400009?input=1195m>

눈물 흘리는 이란 선수들 다독인 미국... "진정한 스포츠 정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QVV8QR9>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공동 개최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212061216013&sec_id=561501&pt=nv

강태선 회장·김봉주 이사장, 서울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https://www.ytn.co.kr/_ln/0107_202212051536321511

대한체육회, 2022년 하반기 회원종목단체 직원 워크숍 개최

<http://osen.mt.co.kr/article/G1112003247>

경남 생활체육시설 기금사업 60억 추가 확보...올해 전국 최다 규모

<https://www.nocutnews.co.kr/news/5860409>

2022 삼척생태도시배 종목별 체육대회, 6일 폐막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51038313759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